

흘러간 사건에 대한 시적 인상들은 유약하게나마 머릿속에서 굳은 채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우리가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일상의 상황 역시 인식하는 순간부터 과거가 되어버리며, 언젠가는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거나, 왜곡된 상태로 남을 수도 있다. 이렇듯 시선에 들어온 찰나의 순간에 의해 호출된 과거의 장면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현재의 의식 속에서 떠오른다. 어떤 시선이나 외적 개입이 제거된 적막함의 한가운데 서 있게 될 때 발동하는 감각과 그에 따른 생각은 제대로 인지되지 못한 채 흘러보낸 삶의 순간을 환기시키기도 한다.

스스로 경험한 장소의 감각 기억들을 하나의 사진이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총체적 경험들을 회화의 촉각적 언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한 장의 사진에 담긴 풍경의 배열들을 체현하고, 변형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의 예측 불가능성을 담고자 한다.

근래에 제작하는 작품들의 부제는 '풍경이 기억하는 사건'으로, 국내의 여러 지역을 리서치 하는 과정에서 본 것, 메모한 것들로부터 시작한다. 화면 속의 대상에 대한 몸의 움직임, 선택된 회색조, 시간의 흔적, 질감의 극대화 등을 통한 그리기는 시간의 틈을 만들어 낸다. 어떠한 상황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신체적 개입을 통해 대상과 나의 거리를 좁히려는 것은,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표면 너머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이기도 하다. 낭만적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풍경이 아닌 심리적 재현으로 재구성된 풍경화를 제시하여 현실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과정에 대해 질문을 가져보려 한다.